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기후위기 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EAP) 실시

국지성 집중호우 및 지진 등 극한 재난 상황 가정, 민·관 합동 대응체계 점검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하류 지역 주민 대피 등 실전 같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뉴스일자 : 2026년05월20일 17시25분



[GBS방송 이명수 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정찬조)는 5월 19일,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침교저수지, 주교1저수지 일원에서 ‘2026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EAP)’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한 호우나 지진 등으로 인해 저수지 제방이 유실되거나 붕괴 위험에 처하는 가상의 긴급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을 비롯해 지자체, 경찰서 및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치러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 유도 ▲긴급 동원 업체를 통한 시설물 응급 복구 등 단계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재난 안내방송을 통한 초기 대피로 확보와 유관기관 간의 신속한 공조 체계 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정찬조 지사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 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비상대처훈련과 철저한 농업기반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재해 예방 및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news.co.kr> 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